

한라중, 록히드마틴에 무궁화호 위성 부품 인도

한라중공업은 미국 록히드마틴 사로부터 수주한 2백18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궁화 3호 위성체의 전력계 핵심부품을 납기보다 두달 앞당겨 최근에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인도한 부품은 위성체의 각 시스템에 전력을 공급하는 퓨즈 보드 어셈블리와 태양전지판을 전개하거나 추력을 내기 위해 명령신호를 추력기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파이로 릴레이 어셈블리다.

한라중공업은 역시 무궁화 3호 위성의 전력계 부품인 니켈수소 배터리 시스템은 오는 11월까지 제작해 록히드사에 인도할 예정이다.

이리돔 위성 72기 발사완료, 9월 상용서비스 개시

우리나라의 SK텔레콤 등 세계 20여개 업체가 참여하는 위성휴대통신(GMPCS) 국제컨소시엄인 이리돔사가 72기로 이뤄지는 위성망 구성을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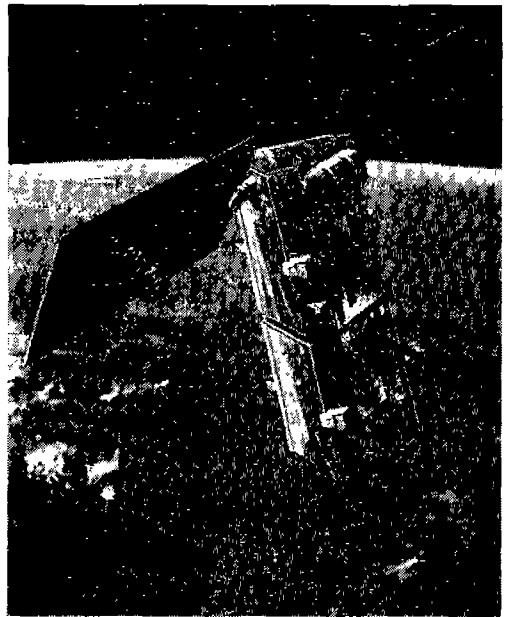
SK텔레콤은 18일 자사를 비롯, 세계 15개국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이리돔사가 이날 오전 6시 16분(한국시간) 미반덴

버그공군기지에서 72번째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리돔은 이로써 지난해 5월 첫 위성 발사이래 서비스에 필요한 72기(예비위성 6기 포함)의 위성 발사를 완료, 위성망 구성을 마쳤으며 이어 위성파 지상 단말기, 관문국간 통신 시험, 요금정산시스템 등의 최종 점검을 위한 시험서비스에 들어가 당초 일정대로 9월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가게 된다.

SK텔레콤이 이리돔 사업준비를 위해 설립한 이리돔 코리아도 지난해 8월 관문국(지구국, 교환국) 건설 및 장비 설치를 완료한 데 이어 이들 장비를 이용한 실제 통신시험을 실시하고 8월부터는 시험서비스와 동시에 예약가입자를 받아 9월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리돔서비스는 지구 상공 7백 80km에 72기의 위성을 띄어 통신망을 구성, 휴대용 단말기로 사막이나 극지 등 전세계에서 이동전화, 무선호출, 데이터 및 팩스서



최근 이리돔사는 위성 72기를 모두 발사완료하고 통신시험을 하고 있다. 사진은 록히드마틴사의 LM700 이리돔 플랫폼

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차세대 위성시스템이다.

이리돔사업에는 미국의 모토로라, 일본의 DDI 등 세계 20여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8천2백만달러를 투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관문국 관할권과 서비스 공급권을 확보했다.

싱가포르 텔레콤, 위성통신사업 철수

싱가포르 텔레콤이 중국 업체 등과 공동추진해 온 위성통신사업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텔레콤이 철수하는 사업은 약 6억4천만달러를 들여 정지위

성 통신망을 구축해 중국, 일본에서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이르는 아시아 전역 이동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시아태평양이동통신(AMPT)계획으로 중국계 4개업체와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테크놀로지 텔레미디어(STT), 싱가포르 텔레콤등이 참가하는 사업총괄회사 「APMT세트라이트」가 이미 설립된 상태이다.

싱가포르 텔레콤은 대만기업과도 위성통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 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아시아지역의 금융위기 영향으로 위성통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美 상업용 위성 2002년까지 민간 이양

미국 하원은 그간 전세계 인공 위성 네트워크의 서비스를 독점해 온 미국 정부출자인 콤셋(COMSAT)의 독점체제를 종식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또 세계 상업용 인공위성을 양분하고 있는 인텔셋(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와 인마르셋(Immarsat·국제해사위성기구)를 오는 2002년과 2001년까지 각각 민영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2년 미국 의회 법안에 따라 설치된 콤셋은 당시만 해도 민간이 부담키 힘든 위성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정부가 담당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미국 하원은 이날 법안 배경 토론에서 이미 인텔셋에 1백42개국, 인마르셋에 89개국이 가입중이라며, 민영화를 실시해도 재정적 독립이 가능할 뿐 아니라,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미국 소비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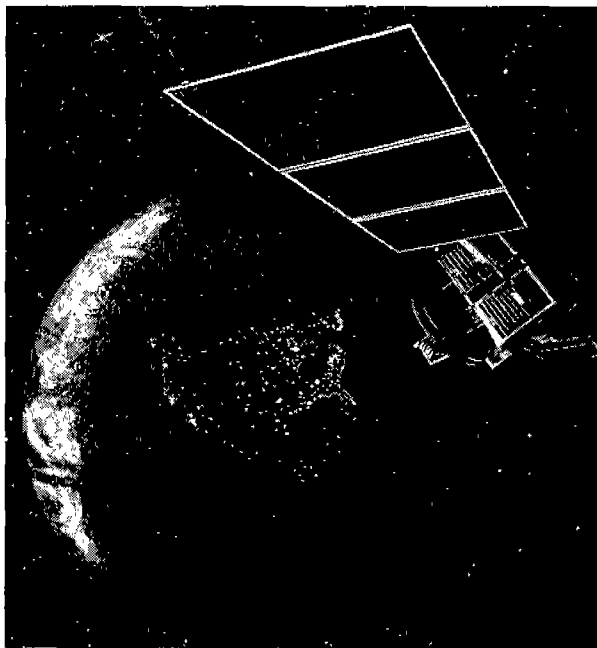
에게 수십억달러의 이득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미국상원까지 통과하게 될 경우, 앞으로 민간업자들이 콤셋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위성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美·佛, 인공위성 기술협력 합의

미국과 프랑스는 인공위성 기술 부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올 연말까지 구체 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알랭 리샤르 프랑스 국방장관은 지난4월 30일 워싱턴에서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과 회담한 뒤 양

국이 우주기술 향상 노력에서 중요한 협력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주활동의 양대 요소인 통신, 정보 두 부문에서 모두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언 장관도 미국과 프랑스시 항공, 정보, 통신위성 부문에서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연말까지 구체 방안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 상업용 인공위성 시장을 양분하는 인텔셋과 인마르셋이 민영화 될 예정이다